
SeMA

Press Release Ver. 1

2019.04.10.

홍보담당 김채하

Public Relations Kim, Chae Ha

T. 02-2124-8928

E.mail. chaeha@seoul.go.kr

webhard. <http://sema.webhard.co.kr/>

ID:semapress PW:sema

2018 SeMA 신소장품 《멀티-엑세스 4913》



전시명	2018 SeMA 신소장품 《멀티-엑세스 4913》
전시기간	2019. 4. 16.(화) ~ 6. 2.(일)
개막식	2019. 4. 16.(화), 17:00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전시부분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사진, 조각 설치, 뉴미디어
전시작가	95명

핵심 개요

- 서울시립미술관이 2018년 수집한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2018 SeMA 신소장품 《멀티-엑세스 4913》 전시 개최
- 새로 수집한 작품과 더불어 '4913'점의 미술관 소장품 전체 성격을 소개
- 매년 수집한 작품만 선보였던 신소장품 전시의 관례화된 전형을 벗어나, 아카이브, 전시와 스크리닝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을 '다각도(멀티)'로 '접근(엑세스)' 하는 장을 마련

전시 개요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2019년 4월 16일(화)부터 6월 2일(일)까지 2018 SeMA 신소장품 《멀티-엑세스 4913》展을 서소문본관 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미술관이 새로 수집한 작품과 더불어 미술관 소장품의 전체 성격을 보여준다. ‘소장품 등록번호 1번’인 박생광의 <무속>(1985)으로 시작된 서울시립미술관의 영구소장품(permanent collection)은 올해 4,913점에 이르렀고, 2018년 162점(구입 139점, 수증 23점)의 작품을 새로 수집했다.

《멀티-엑세스 4913》은 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미술관의 역사를 기록한 저장 장치로 파악하고 ‘아카이브’, ‘전시’와 ‘스크리닝’을 통해 그 매체에 ‘다각도(멀티)’로 ‘접근(엑세스)’ 하도록 구성된다. 이는 해마다 새로 수집한 작품을 소개하는 데 그쳤던 관례화된 소장품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미술관의 역사와 기억 장치로서 작동하는 컬렉션 전반에 대한 정리 작업이자, 관람객들이 미술관의 소장품을 ‘엑세스’ 하는 방식을 확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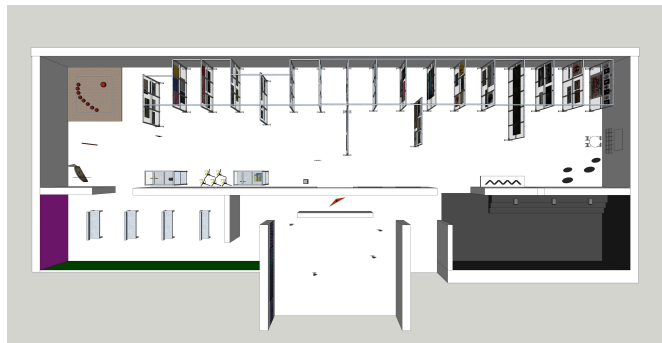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의 전체 성격을 보여주는 ‘아카이브’ 룸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카이브 룸은 소장품 역사를 작품의 시대/장르별, 수집 연도별, 제작 연대별로 분류한 자료들을 소개한다. 이 공간은 앞으로 도래할 소장품의 역사를 추측하여 미래조감도를 그려보기 위한 바탕이면서, 새로 수집한 작품과 기존 소장품과의 연관 관계를 정립해 볼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것이다.

2018년 신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스크리닝’에서는 작품을 별도의 분류 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고, 컬렉션이 수장고에 입고될 때 부여 받는 고유 코드, 즉 관리번호 순서로 설치하여 작품 하나하나를 수장고와 같은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공간에서 관람객은 전시의 주제나 분류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품을 자유롭게 접근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멀티-엑세스 4913》은 그동안 서울시립미술관이 걸어온 소장품 수집의 역사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이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의 역사를 역추적하면서 새로 수집한 작품들과의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관이 소장품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식의 ‘접근(엑세스)’ 통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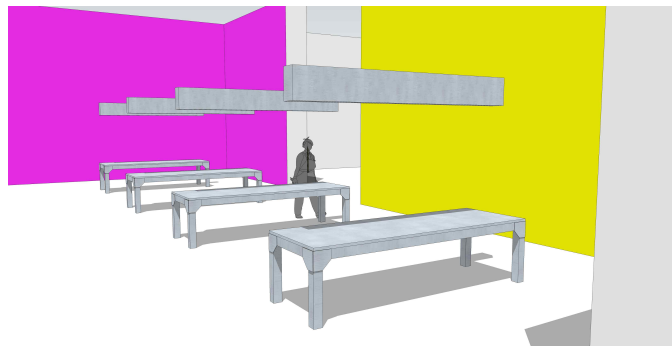
전시 설치(안)

전시장 조감도



아카이브

소장품을 시대/장르별, 수집 연도별,
제작 연대별로 분류한 자료들을 소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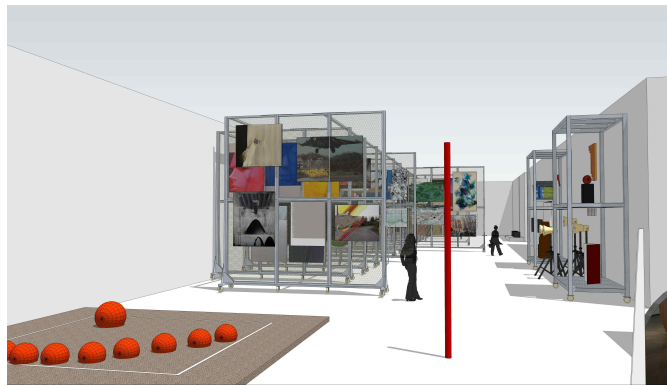
2018년 신규 수집한 작품을
소장품 관리번호 순서로 설치



전시 설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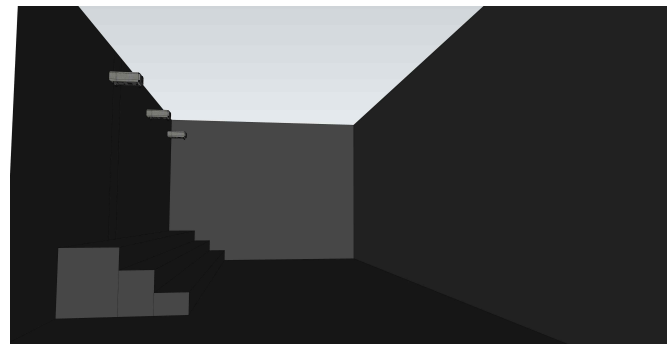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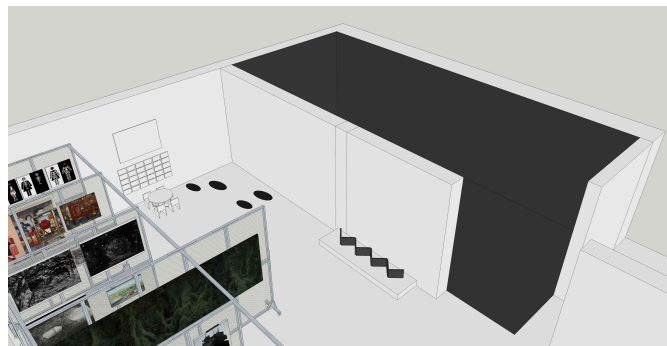
전시

2018년 신규 수집한 작품을
소장품 관리번호 순서로 설치



스크리닝

2018년 신규 수집한 뉴미디어
작품 반복재생



출품작

2018-049

서승원(1942-), <동시성 68-7>, 1968, 163×112cm, 캔버스에 유채

서승원의 예술 세계는 한국 모더니즘 미술에서 중요한 한 시기를 보여준다. 1962년 앵포르멜 추상이 주를 이루던 한국 미술계에서 최초의 기하학주의를 정립한 그룹 '오리진'을 창립하고,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한국 추상미술 제2세대를 이끌었다. 또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갈망에서 1970년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창립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예술 세계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형적 질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탈앵포르멜적 시도는 초기 작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하학적 패턴과 '동시성'이라는 두 축을 이루며 나타난다. 그의 회화에 나타나는 '동시성(同時性)'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세 요소인 형태, 색채, 그리고 회화 공간이 위계를 이루거나 혹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균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의 작업은 비평가 이일이 "이지적 세계로부터 따뜻한 체온이 감도는 감성적 세계로의 이행"으로 설명한 것처럼, 좀 더 따뜻한 추상의 세계로 변모한다. 이는 작가가 젊은 시절 만들어낸 '동시성'의 표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년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관람자들 사이에서 감성의 동시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



2018-056

안창홍(1953-), <가을과 겨울사이>, 2014-2015, 136×346cm,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피그먼트 잉크

안창홍은 1970년대부터 독특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꿰뚫어보고 비판하는 그림을 그렸다. 초기에는 주로 인물 초상화를 그리다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그린 '가족사진' 연작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오래된 가족사진을 캔버스에 옮겨 그린 이 작품들에서 인물들은 여전히 우화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눈을 파내거나 그리지 않아 섬뜩한 느낌을 준다. 이후 작가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현실과 발언' 활동을 통해 제작한 '전쟁' 연작 등에서 좀 더 사회비판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작가는 문명에서 자연으로 주제를 바꾸고, 다시 2000년대 후반에는 주위 인물들에게로 눈을 돌려 일상적인 사람들의 누드화를 그렸다. <가을과 겨울 사이>를 그리던 2014년은 말레이여객기 피격, IS의 이라크 점령, 세월호 사건 등 전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가득했던 시기였다. 화면 속 시들어가는 맨드라미 꽃들의 처연한 풍경을 통해 안창홍은 세상의 우울한 현실을 나타낸다. 이처럼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안창홍의 작품은 인간의 절망과 고통을 우화적으로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155

이승조(1941-1990), <핵 77-11>, 1977,
161.5×130.2cm, 캔버스에 유채

이승조는 일명 '파이프의 화가'라 불렸던 기하추상 화가이다. 1960년대 한국미술이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을 때, 그는 이에 반하여 보다 근원적인 조형언어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오리진' 그룹을 결성했다. 평생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하추상을 지향했으며, 1990년에 타계할 때까지 <핵>이라는 단일 제목 하에 금속 파이프 같은 느낌을 주는 차갑고 기계적인 형태를 통해 치밀하고 질서정연한 조형을 추구했다. 그에게 파이프는 구체적인 대상도 현대문명의 상징도 아니었으며, 다만 반복의 행위에 의해 물체성을 드러내는 착시가 맺은 결과적 환영일 뿐이었다. 그는 그 시각 현상에 천착했으며, 그것을 '핵'으로 보았다. 그의 작품의 제목이 모두 <핵>이라는 점은 착시가 곧 핵임을 시사한다. 착시, 혹은 그 결과로서의 환영이야말로 회화의 근원적 정체이자, 회화를 통한 시각 경험의 단초, 혹은 핵이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1967년까지는 오리진 멤버들과 함께한 기하추상의 실험기였으며, 이 시기에는 유독 옵아트의 경향을 보였다. 1968년에서 1973년까지는 금속 느낌이 드는 원통형의 이미지들을 이용해 입체적인 화면공간 구축을 시도한 시기로 분류된다. 원통형의 이미지들이 '파이프'로 일컫는 착시의 공극에 도달하고, 이 파이프들을 다양한 크기와 길이로 겹쳐 쌓거나 단색면과 병치하여 치밀한 공간 질서로 구축해나갔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파이프의 환영이 약화된 단색의 모노크롬 회화를 선보이기도 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입체적인 공간구축과 단일 색면 구성이 변증법적으로 종합된 옵아트적 작품양식을 확립했다.



2018-156

임동식(1945-), <거북이>, 2005, 182×227cm, 캔버스에 유채

임동식은 베트남전쟁 참전 후 귀국하여 1970년대 미디어 설치 작품을 선보이다가 당대 사회상과 도시문화에 대한 성찰을 태도로 1981년 국내 최초의 자연미술 운동그룹인 '야투(野投)'를 공주 일대에서 창설했다. '야투(들에서 던진다)'의 미학적 태도는 '자연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작품의 결과물 보다는 '교감'에서 발현된 미적 표현을 중시하는 것에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대면할 때 이성(理性)이 배제된 맑은 의식 상태에 놓이고, 이러한 조응으로 인해 자연과 합일된 순수 세계 의식이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2000년 이후 임동식은 자연과 일체화된 삶을 뒤로하고 화가로서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화면은 작가가 20년동안 자연에서 수양, 성찰한 행위적 면모가 투사되는데, 일례로 <거북이>는 임동식이 유학 시기 독일 함부르크 인근에서 진행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작가는 박제된 거북이를 등에 업고 거북이가 이동하는 속도로 풀밭을 기어갔다. 실제 이 퍼포먼스를 했던 시간은 낮이지만 그가 풀밭을 기어갈 때 느꼈던 촉각적 경험이 작품에 투영되어 어두운 화면 속 거북이와 동화된 모습이 나타난다.





2018-160

최민화(1954-), <두 개의 무덤과 스무 개의 나>, 1999, 139×387cm, 캔버스에 유채

최민화는 1980년대부터 한국의 리얼리즘을 화폭에 담아내어 역사를 증언하면서 동시에 삶의 현장성을 투영해 온 화가이다. 1990년대에는 <분홍> 연작을 통해서 '부랑'이라는 주제를 분홍색의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서 역동적인 생의 기운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분홍 그림에는 강가나 들녘 혹은 길에서 기타를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며, 또는 담배를 물고 누운 청년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류다. 이 청년들은 작가 본인, 군대에서 의문사로 잃어버린 동생, 친구, 또는 이름 모르는 부랑아들이다. 분홍의 색채 개념에 대해 작가는 "나의 분홍은 의식적인 색채다. 단순 명료하다. 기본적으로 민족의 남북 분단,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 천민자본과 민중관계 등 혼재의 소용돌이를 반영하는 색채"라고 언급했는데, <두 개의 무덤과 스무 개의 나>는 그러한 분홍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작가에게는 부모님이 합장된 무덤 하나와 일찍 죽은 동생의 무덤 하나, 즉 두 개의 무덤이 있다. 주검과 살아있는 작가 본인을 그릴 때, 주검과 반대로 살아 있음은 정해지지 않고 수 없이 많이 존재함을 나타낸 것이다.

SeMA

Seoul Museum of Art

Press Release Ver. 1

2018 SeMA 신소장품 《멀티-엑세스 4913》

기본 정보**주 최** 서울시립미술관**전시담당** 이설희 학예연구사

seolhui.sema@seoul.go.kr / 02-2124-8955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립미술관

관람시간 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뮤지엄나이트(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2: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 랑 료 무료**홍보문의** 김채하 학예연구사

02-2124-8928

관련 이미지 다운로드서울시 웹하드시스템 접속(<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